

취업하기 힘든 사회... '2030 일자리' 16만개 사라졌다

지난 2분기(6월 기준) 20대 이하·30대의 임금 근로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40대·50대·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일자리만 나홀로 감소하는 현상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브리핑을 열고 "이 기간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89만 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만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사회 보험·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으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해 이 통계를 작성했다.

통계 작성 기준 시점 1개월 동안 근로자가 동일한 기업체에서 근로한 일수를 전체 일수로 나눠 일자리 개수를 셸다. 예를 들어 5월 한 달 동안 15일만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일자리는 0.5개로 계산했다. 다른 근로자가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일자리는 복수로 집계된다.

그 결과 20대 이하 일자리 개수는

통계청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 2030 일자리, 8만2000개씩 나란히 감소해 4060 일자리는 일제히 증가 대조적 상황 이번 분기 증가한 새 일자리 3년래 최저치

316만1000개, 30대는 432만개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8만2000개씩 줄었다. 감소율은 20대 이하 2.5%, 30대 1.9%다. 40대 일자리 개수(466만개)는 2만2000개, 50대(421만1000개)는 12만8000개, 60대 이상(254만6000개)은 22만5000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0.5%, 3.1%, 9.7%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이번 분기에는 제조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 숙박·음식 등 업종의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폭이 컸는데, 2030이 많이 종사하는 곳"이라면서 "20대 이하의 경우 제조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 숙박·음식, 도·소매 순, 30대는 제조업, 건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 도·소매 순으로 일자리 개수가 감소했다"

고 했다. 실제로 산업별 일자리 개수 증감을 보면 전체의 21.9%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만5000개(-1.5%)나 줄어 들었다. 사업지원·임대서비스(2만9000개·-2.1%), 숙박·음식(2만6000개·-3.0%), 예술·스포츠·여가(4000개·-2.6%)도 감소폭이 컸다.

2030 일자리는 지난 분기에도 줄었다. 1분기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만3000개(-0.4%), 30대는 4만7000개(-1.1%) 감소했다. 30대 일자리는 2019년 4분기에도 2만4000개(-0.5%) 줄어든 바 있다.

60대 일자리 개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 정책 덕분으로 보인다.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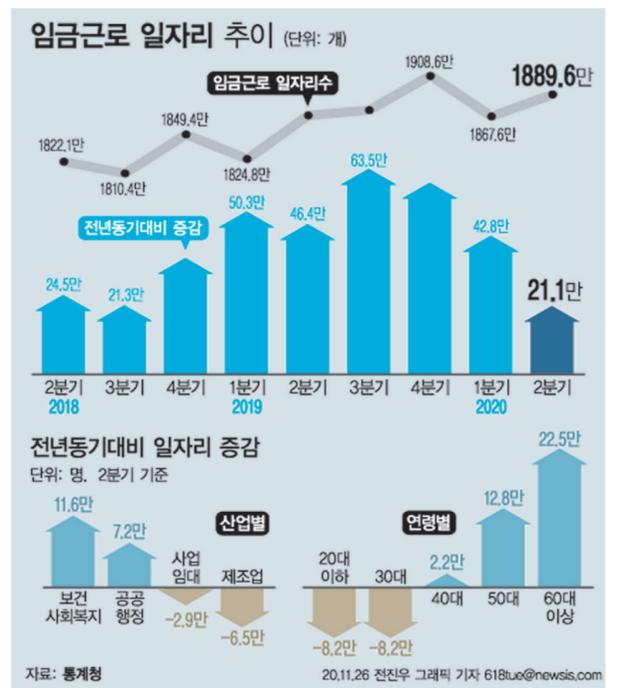
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반영되는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 일자리 개수는 각각 10만9000개(11.6%), 6만9000개(7.2%) 늘었다.

이번 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개수 증가 폭(21만1000개) 역시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8년 1분기 이래 가장 작다. 1분기 늘어난 폭(42만8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19년 3분기(63만5000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9년 1분기 50만3000개 늘어난 임금 근로 일자리 신규 증가 수는 다음 분기 46만4000개로 감소했다가 3분기 63만5000개→4분기 59만2000개→2020년 1분기 42만8000개→2분기 21만1000개로 바뀌었다.

김 과장은 "이번 분기에 일자리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있다"면서 "2019년에는 일자리 개수가 매 분기 50만개 이상씩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 42만8000개, 2분기 21만1000개로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컸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코로나 장기화, 외롭다”...반려동물 수입 2배 이상 급증

전년보다 약 2배 급증해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반려동물의 수입 실적은 1만2700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637마리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수입된 반려동물은 반려견 9965마리, 반려묘 2735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세관 측은 “1인 가구 증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가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통관절



차에 필요한 준비에도 관심이 쏠린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와 항공 운송장(B/L)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을 신청한 후 ‘동물검역증서’를 수입신고

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한 경우 가격을 알수 있는 자료(Invoice 등)와 항공운송장 사본, 동물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 위기 속 해외건설 300억 달러 수주 쾌거

아시아·중동 여전히 강세 속 중남미 수주액 23%로 급증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도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3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해외수주 실적 223억 달러보다 35% 늘어난 규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체 수주액인 223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2018년 321억 달러 이후 2년 만에 연간 수주액 300억 달러 수주에 성공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6%)·중동(34.3%)이 여전히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을 차지한 가운데 중남미 지역 수주 규모가 지난해 0.6%(1억 3000만 달러)에서 올해 23%(68억 9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올해 37억 달러 규모 멕시코 도 스포카즈 정유공장과 28억4000만 달러 규모 파나마 메트로 등 굵직한 사업을 따냈다.

공정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6.9%)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토

목 22.7%, 건축 15.5%, 엔지니어링 2.5%, 전기 2.2%, 통신 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사업(7580만 달러),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감리(514만 달러)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성과를 냈다.

투자개발사업(PPP)의 경우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사업 등 신 시장 개척과 함께 한·방글라데시 플랫폼 등 정부 간 협력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EPC)에 머물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755만 달러 규모 PDH 플랜트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720만 달러 규모 부하량 정유공장의 기본설계(FEED)까지 수주했다.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인건국제공항공사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해외건설수주는 코로나19 위기와 저유가 속에 세계경기 불확

실성이 증가하면서 발주공사가 연기 또는 감소하거나 국가별 봉쇄 조치 등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해외수주 하락세를 받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전방위적 수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코로나 3차 확산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며 “올해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목표를 넘는 해외수주 실적을 달성했기에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해외 수주는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서 토목, 산업설비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 받은 것으로 우리 건설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수주 뿐 아니라 수출, 내수 등에서 우리 경제 반동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직장인 4명 중 3명 “재택근무 만족”...회식 사라진 점도 ‘환영’

직장인 77.5%, 재택근무 만족...출퇴근 시간↓ 업무효율↑



직장인 4명 중 3명 이상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낸 가운데, 장점으로는 출퇴근 시간의 절감 및 회식 또한 줄어든 것을 꼽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풀이 이달 직장인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다. 먼저 참여자의 77.5%는 ▲만족, 나머지 22.5%는 ▲불만족을 택했다.

집에서 근무한 직장인 4명 중 3

명이 높은 만족도를 드러낸 것으로, 그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절감(29.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어찌면 재택 실시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감염우려 최소화(23.5%)보다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이 밖에도 ▲불필요한 회식·행사가 사라짐(15.0%) ▲(업무 외)가사, 육아 도모가능(10.4%) 등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반색했다. 이외 ▲비대면 근무방식이 업무효율 증진이 있다고 판단(12.5%) ▲

김미희기자

농심, 너구리 매출 ↑ ...국산 다시마 사용량 덩달아 ‘굉충’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34% 성장한 1000억원 기록



농심은 올 초부터 화제가 된 짜파구리 열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라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너구리의 올해 10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4% 성장한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심의 올해 국산 다시마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인 500톤(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너구리는 장기간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원재료를 구매한다.

실제로 농심은 매년 너구리 생산을 위해 완도산 다시마 400톤(t)을 구매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농심은 작황이 좋아 품질이 좋은 다시마를 수급하기 위해 180톤(t)을 추가로 구매했는데 너구리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올해 국산 다시마의 사용량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편 농심이 완도 다시마를 고집한 것은 1982년 너구리 출시때부터다.

농심은 개발 당시 차별화된 해물우동 맛을 구현하기 위해 완도 다시마를 선택했고 이후 너구리의 상징이 됐다.

지금까지 농심이 구매한 다시마의 총량은 1만5000톤(t)이 넘는다.

농심이 한 해 구매하는 다시마는 국내 식품업체 최대 규모로 완도지역 연간 건다시마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최이슬기자